

## 상공자원부

# 기후변화협약에 우리나라 年内가입예정

지구온난화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이산화탄소배출억제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에 한국이 연내에 가입한다.

상공자원부 李元에너지 정책과장은 『지난해 리우UN환경회의 이후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규제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 5월중 환경관련 장관회의를 거쳐 연내에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할 방침』이라고 5월 11일 말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산화탄소배출이 많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배출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발전원 구성을 조정하고, 청정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朝鮮)

## CO<sub>2</sub>배출감축위해

## LNG보급

# 확대해나간다

## 海外자원개발 活性化

# 기존사업 용자 支援 150억원늘려

해외자원개발사업이 크게 활성화된다.

정부는 올해 자원부국인 中國 베트남은 물론 미수교지역에 대한 자원개발에 신규진출키로 하는등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확대키로 했다.

또 태평양 深海底자원개발에 대한 유엔해양법 협약발효(94년계)이전에 단독 광구를 확보하고 사업추진체계를 확립하기위해 올해안에 심해저광물자원개발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4월 11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자원개발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올해 中國의 「치하」지역에서 활석, 「운광」 및 「석대」지역에서 유연탄鑛사업을 벌이고 베트남의 「홍손」지역에서는 주석鑛사업에 나서기로 했

정부는 앞으로 전기요금의 조정방식을 사업자인 韓電이 적정투자보수율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따라 적어도 내년부터는 韓電이 적정투자보수율인 9% 수준을 기준으로 조정시기와 조정폭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된 반면 금년도에 한해서는 韓電의 투자보수율이 7.5% 낮아질 전망에도 불구하고 신경세계획등 정부의 물가억제 방침에 의거, 올해중에는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요금구조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수요

## 深海底광물개발법 年内 제정

다.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지난해 11개鑛種 29개사업에서 올해 13개鑛種 31개사업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주)대우가 추진하는 캐나다 베이커레이크의 우라늄鑛개발사업등 기존 개발사업에 대한 용자지원도 확대, 지난해 1백 28억원에서 올해 2백 78억원으로 1백 5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유망광산화보를 위해 세계 21개지역에 대한 기초 및 탐광조사와 미개

## 올해 보수율 낮아질 전망이나 인상않을 방침

관리위주로 개선, 현행 19% 정도인 기본요금비중을 적정수준인 35%까지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하계기간과 최대부하시간은 각각 1개월과 5시간씩 단축하고 심야시간대와 최대부하시간대의 요금차등폭 확대등 계절별, 시간대

## 未修交國진출도 더욱쉽게

척지역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을 파견하는데 소요되는 13억원의 비용도 국외에서 지원키로했다.

또 未수교국에 대한 해외자원개발사업출시 국무회의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키로 하는등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키로했다.

이와함께 지난해부터 착수한 하와이 동남방 2천km지점인 CIC해역(망간團塊 약4백억t 부존추정)에 대한 해저탐사에 대해서는 올해 20억6천6백만원의 사

업을 추가로 투입, 올해안에 단독광구를 확보토록했다.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보면 우선 韓·印尼자원개발이 단독참여한 인도네시아파시르유연탄 개발사업이 지난해 생산 및 기반시설투자를 완료, 올해부터 1백50만규모의 생산을 개시했고 三星物産이 50%지분참여한 濠洲스프링베일유연탄사업은 올해 30만t을 시험생산할 예정인데 오는 95년부터 연간 60만t씩 국내에 들어올 계획이다.

또 럭키금성(주)이 40%지분으로 지난 92년 7월부터 합작참여한 칠레 로스펠람브레스銅鑛사업도 지난해 7월부터 국내도입을 개시했는데 지난3월부터는 생산규모 확장을 위한 타당성도 검토중이다.(한국경제)

## 상공자원부

### 연근해 해역 10만Km<sup>2</sup>지질조사

### 2004년까지 50억원 투입계획

상공자원부는 오는 2004년까지 모두 50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연근해역 약 10만km<sup>2</sup>에 대해 규사및 골재등의 해저자원확보및 해저공간활용을 위한 해저지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5월 16일 발표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에따라 5월17일 착수할 예정인 군산 앞바다의 4천km<sup>2</sup>에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97년까지는 서해와 남해, 98년부터 2004년까지는 동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이번 조사에 50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히고 해양조사선 탐해호등 조사장비와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과거부터 기초조사를 해온 한국자원연구소가 사업을 맡는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과거의 해저지질조사가 서해와 남해일부에 대해 재래식 장비로 실시돼 해저지질도(海底地質圖) 작성에 그침에따라 산업분야에서는 활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사에서는 해저면 側査관측기, 정밀음파탐사기등 최신장비를 사용해 해저지층의 물리특성및 해저자원 부존여부까지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海外자원 개발이 불가피하다.

사진은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낮은 山野에서 탐사작업에 여념이 없는 탐사원>



## 전기요금, 韓電이 자율조정 투자보수율 확보가능 적정범위내서

별 차등 요금제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수용가의 자발적인 전력수요관리 유도및 소비자 편익 극대화를 위한 선택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현행 특례요금의 폐지와 함께 원가수준이하 요금을 현실화 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경우 지난 91~92년에 걸쳐 11.2% 인상 조정된 바 있는 전기요금은 올해를 넘긴 94년초경에 상당폭의 실질적인 요금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최소한 매2년 간격으로 지속적인 전기요금인상이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經濟)

## 국제품질보증시스템 획득위해

### 에너지協會員 엔지니어링社들 적극나서

#### 現代·大宇·三星에 럭키·大林도

국내 대형엔지니어링업체들이 국내시장개방에 대비하는 한편 품질관리강화를 통한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국제품질보증시스템인 ISO 9001의 인증획득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5월 17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럭키엔지니어링과大林엔지니어링이 지난해 ISO 9001인증획득을 위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이어大宇엔지니어링과現代엔지니어링등도 올해 인증획득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등 인증획득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大宇는 설계, 품질관리, 구매등 5개부문에 걸쳐 13명의 전담요원을 선정, 품질관리부의 부장을 팀장으로한 ISO인증획득 추진팀을 구성했다.

내년 10월 본심사를 거쳐 인증을 획득한다는 목표를 세운 大宇는 4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1단계는 전담자교육훈련을, 2단계는 자문기관선정과 분야별 업무분석진단을, 3단계는 품질시스템 개발과 실제 업무적용을, 4단계는 품질검사를 받는등 인증획득을 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現代도 지난 3월 ISO 9001인증획득을 위한 전담조직구성을 마무리짓고 세부추진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회사측은 금년 5월부터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작성 작업에 들어가 올해안에는 자

체업무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三星엔지니어링은 올해초 품질안전팀 산하에 표준화추진사무국을 신설, 사내에 있는 6백여건의 매뉴얼과 4백여건의 기술시방서에대한 표준화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를 토대로 올해안에 구체적인 ISO인증획득사업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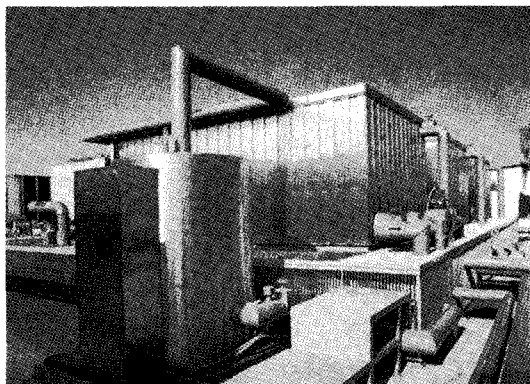
지난해 인증획득사업에 뛰어들 大林은 내년 하반기에 인증을 획득한다는 목표아래 표준화작업을 진행중이다.

대형엔지니어링업체중 가장 먼저 ISO인증획득 사업을 시작한 럭키의 경우 표준화작업이 현재 마무리단계에 와있어 오는 6월까지 인증기관을 선정, 본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 절약형 電氣기기구입, 보조금 30%지급키로

6월부터 전구형형광등과 전자식 안정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구입사실을 한국전력공사에 신고하면 구입가격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받는다.

또 氷蓄熱냉방기를 구입하는 업체는韓電으로부터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보조금을 받게된다.



건조물 옥상에  
설치된  
氷蓄열(氷蓄熱)  
냉방시스템 시설

상공자원부는 올해 전력수급안정을 위해 이같은 장려금제도를 도입하고 氷蓄열냉방기와 가스냉방기를 설치하는 수 용가에 대해서는 氷蓄열 59억원, 가스 22억원등 모두 81억원의 에너지절약 시설자금을 융자하겠다고 4월 28일 발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와 함께 현재 자동차와 조명기기, 냉장고등 가전기기에대해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에어컨, 전자식안정기, 세탁기등으로 확대키로 했다.(東亞)

## 최고 속도 시속120Km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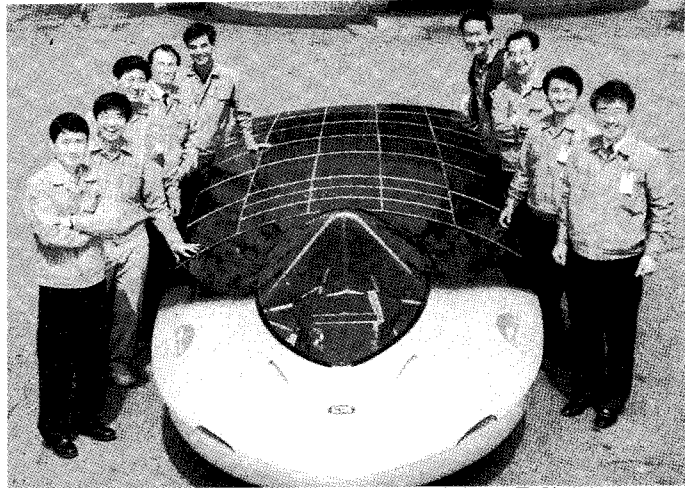
起亞자동차는 4월 8일 무공해자동차인 태양광자동차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사진).

이번에 개발한 태양광자동차는 첨단 복합재료를 사용한 1인승 경주용 승용차로 중량 1백80kg, 길이 6m, 폭 2m, 높이 1.2m로 최대속력이 시속 1백20km라고 기아측은 설명했다.

태양광자동차는 태양광전지를 사용하며 일조량이 적은 경우에도 최대출력점 추종기(MPPT)를 이용해 집광판으로부터 전기출력이 최대가 되도록 설계했다.

기아는 오는 96년까지 부품실용화를 끝낸 뒤 98년까지 도시형 차량개념으로 차량실용화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東亞)

## 太陽光 자동차개발 起亞 '98년까지 실용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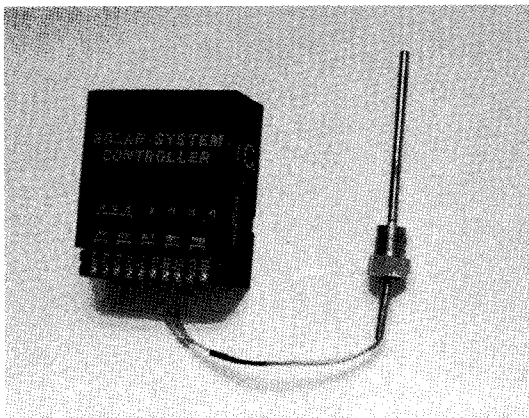


〈연구개발팀이 제작한 太陽光 자동차와 함께 포즈를 취했다.〉

## 태양열 差溫제어장치 개발

### 에너지技研 계절따라 최적상태조절

한국에너지技術연구소가 개발한 한국형 「태양열 차온(差溫)제어장치」



우리나라 사계절에 맞추어 가변적으로 조절이 되는 한국형 태양열 差溫제어장치가 개발됐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金釜浩, 朱文昌 연구원팀(태양열연구부)은 4월 26일 태양열을 이용해 온수 급탕 및 난방시설을 할 때 일사량과 蓄熱槽의 온도변화를 감지, 계절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가변적인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태양열 차온제어장치를 개발, 국산화했다고 밝혔다.

태양열차온제어장치는 태양열시스템에서 집열을 최대화하는 장치로 태양열을 모으는 장치인 집열기 입구의 온도와 집열기를 지나면서 뜨거워진 열전달매체인 물과 부동액의 출구측 온도차에 의해 시스템의 가동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한국경제)